



“타이거즈 왕조 재건 탄탄한 허리 되겠다”

KIA를 대표하는 필승조로 자리해 한국시리즈 우승 꿈을 이룬 전상현이 ‘왕조 재건’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위해 2025시즌을 준비한다.

〈KIA 타이거즈 제공〉

프로 9년차에 ‘우승’ 꿈 이룬 KIA 전상현 “아쉬움도 있지만 자신감 얻어...광주서 내년 시즌 준비”

‘한국시리즈’ 꿈을 이룬 KIA 타이거즈의 전상현이 ‘왕조 재건’이라는 다음 목표를 위해 뛰었다. 전상현은 올 가을 야구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순간을 남겼다. 그는 서스펜디드로 재개된 한국시리즈 1차전, 6회초 무사 1:2루 상황에 등판해 우승컵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을 던졌다. 삼성 김영웅을 마주한 그는 번트로 3루로 향하던 주자를 처리했다. 이어 박병호를 4구째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시리즈 흐름을 바꿨다. 이어 1차전 역전승을 이룬 KIA는 4승 1패의 전적으로 불패신화를 잇고 ‘V12’에 성공했다. 임버릇처럼 한국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이야기했던 전상현은 프로 9년 차에 마침내 그 꿈을 이뤘다. 전상현은 “1차전 잘하고 3차전, 4차전이 좋지 않

아서 아쉬움은 남는다. 그래도 우승을 했다. 값진 경험이었으며, 뿌듯하고 재미있었다”며 “다음 한국시리즈가 기회가 된다면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한국시리즈 1차전은 또 다른 추억도 남겼다. KBO가 진행한 한국시리즈 스페셜 사용구 육선에서 박병호를 삼진으로 돌려세웠던 공이 230만 원이라는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전상현은 “모르고 있었는데 아빠가 이야기해 주셨다. ‘왜 제일 비싸게 팔렸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영광이다”며 “올 시즌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았다. 확실히 그런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상현은 최종 엔트리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만, 프리미어 12 대표팀 소집 훈련에 참가해 또 다른 경험도 했다. 전상현은 “대표팀에 가고 싶기는 했지만 실력이 부족한 것이라서 인정한다. 좋은 투수들 특히 우완 투수들이 많아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래도 올 시즌 한 단계 성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힘든 시간이 전상현을 성장하게 한 자양분이 됐다. 전상현은 “엔트리 한 번도 안 빠지고 풀타임 했고, 우승도 하는 등 올 시즌 성장은 했지만 만족한 시즌은 아니다. 기록도 있었고 아쉬운 기간이 많았다”며 “어릴 때부터 기회를 주셔서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올해 안 좋았을 때도 감독, 코치님께서

많이 믿어주시고 기용해 주셔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그때 더 성장한 것 같다”고 밝혔다. 성장의 시간이 된 2024시즌, 전상현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2025시즌 마운드 허리 역할을 해야 한다. 함께 ‘필승조’로 호흡을 맞췄던 장현식이 FA를 통해 LG로 떠나게 된 만큼 전상현의 역할은 더 커졌다. 전상현은 “1살 1살 먹다 보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위에 형들이랑 밑에 애들 잘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든다. 팀에서 형들과 오래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 편해졌다. 내가 허리 역할을 잘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장현식의 이탈은 전상현과 투수들에게는 또 다른 동기부여도 될 전망이다. 전상현은 “현식이 형은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지만 떠났으니까 아쉽지 않다. 대체할 선수들이 많은 것 같다. 어린 애들이 많다. 확실히 올해 경쟁도 치열해

졌고, 투수들이 다들 잘했다”며 “현식이 형이 좋은 대우 받고 갔으니까 그런 부분은 투수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신의 자리에서 잘하면 된다. 기회도 생길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한국시리즈 꿈은 이뤘다. 다른 한 가지 꿈은 왕조를 이루는 것이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린 선수들이 잘하고 자리 잡아주면 된다. 후배들이 형들을 따라가고 하면 팀이 단단해질 것이다”며 ‘왕조 재건’을 다음 목표로 이야기했다. 또 다른 꿈을 위해 전상현은 바로 다시 출발선에 선다. 이번 겨울에는 광주를 베이스캠프로 삼아 내년 시즌을 준비할 계획이다. 전상현은 “대구에 갔다가 팬페스트 준비로 어제 광주에 왔다. 다음 주부터 운동을 시작할 생각이 있다. 이번에는 광주에서 운동할 생각이 있다. 비시즌 광주에서 보내면서 내년 시즌 준비 잘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리미어12 ‘프리미엄 군침 도네’

12일 오후 대만 타이베이돔에서 열린 프리미어12 한국 야구대표팀 공식 훈련에서 한국 투수진이 마운드를 살피고 있다. 대만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는 우리시각으로 13일 오후 7시 30분 타이베이돔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KBO 선수 일당 30만원에 ‘FA 포인트’까지 일거양득
우승하면 50포인트 획득... ‘1군 등록일수 50일’에 해당
WBC·올림픽 우승 뎀 60포인트...보너스 상금도 ‘두둑’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2024 한국 야구대표팀에 소집된 28명의 선수가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받는 ‘일당’은 30만원이다. 2017년 9월 개정된 KBO 규약에 따르면 대표팀 소집 기간 코치 및 인스트럭터(40만원), 선수(30만원), 트레이너(20만원), 훈련 보조요원(15만원)은 각각 일당을 받는다. 류중일 대표팀 감독은 별도로 올해 2월 KBO와 계약할 당시 합의한 액수를 받는다. 대표팀 선수들에게 일당보다 훨씬 중요한 건 ‘국가대표 포상 포인트’다. KBO는 2009년 이후 국가대표 소집일부터 해산일까지 날짜만큼 프리에이전트(FA) 등록일수를 보상해오다가 2017년 대표팀 성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KBO 규약에 따르면, 이번 프리미어12 출전을 앞둔 선수들은 28인 엔트리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기본 10포인트를 받는다. 대만에서 6개 팀(한국, 대만, 쿠바,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호주)이 치르는 조별리그에서 2위 안에 들어서 4강(슈퍼라운드)에 진출하면 추가로 10포인트를 받는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 최종 50포인트, 준우승하면 30포인트를 획득한다. 이때 받은 1포인트는 FA 등록일수 1일로 계산된다. 선수들은 정규시즌(1군) 현역 등록일수 145일을 넘기면 ‘1’ 정규시즌을 인정받는다. 만약 부상이나 부진 등으로 1군 등록일수가 부족하면, 국가대표 포상 포인트로 이를 채워 ‘1’ 정규시즌을 만들 수 있다. 우승했을 때 가장 혜택이 큰 대회는 올림픽과 WBC로 각각 60포인트를 받는다. 그 뒤를 아시아

게임(25포인트), APBC-아시아야구선수권, 야구 월드컵(각 20포인트)이 있다. 다만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그 대회의 포인트를 획득할 수 없다. 대표팀은 KBO 사무국으로부터 국가대표 포상 포인트 외에도 성적에 따라 상금도 받는다. WBC는 우승 10억원, 준우승 7억원, 4강 3억원이 책정돼 있다. 선수 상금 50%는 별도로 지급한다. 올림픽은 금메달 10억원, 은메달 5억원, 동메달 2억원, 본선 진출 시 1억원이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10억원, 은메달 5억원, 동메달 2억원이다. 프리미어12는 WBSC가 주는 상금으로 대체한다. 2019년 열린 지난 대회 우승 상금은 150만달러(약 21억원)였으며, 이번 대회 상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KBO 사무국 관계자는 “WBSC 규정에 출전국 상금의 절반을 선수단에 나눠준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팀은 13일 대만 타이베이돔에서 열리는 대만과 조별리그 첫 경기로 제3회 프리미어12 도전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손흥민 복귀·유럽과 활약...홍명보호 ‘맑음’

14일 쿠웨이트와 월드컵 3차 예선 B조 5차전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부상에서 돌아온 ‘캡틴’ 손흥민(토트넘)을 앞세워 ‘11월 중동 원정 2연전’의 첫 상대인 쿠웨이트 격파에 도전한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4일 오후 11시 쿠웨이트의 수도 쿠웨이트시티의 자베트 알 아흐메드 국제 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5차전을 펼친다. 쿠웨이트전이 끝나면 대표팀은 17일 요르단으로 이동해 19일 오후 11시 암만 국제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3차 예선 6차전을 펼치는 것으로 올해 A매치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국은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 1~4차전에서 무패 행진(3승 1무·승점 10)을 이어가며 선두를 지키고 있다. 홍명보호는 이번 중동 원정 2연전 승리로 월드컵 본선 티켓 확보의 7부 능선을 넘고 올해 A매치 일정을 기본 좋게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쿠웨이트전을 앞둔 홍명보호의 분위기는 최상에 가깝다. 소속팀 경기 도중 햄스트링을 다치면서 지난 10월 월드컵 3차 예선 3~4차전에 결장했던 ‘캡틴’ 손흥민이 합류한 게 가장 긍정적인 요소다. 최전방과 측면까지 모두 소화하는 ‘완성형 골

잡이’인 손흥민의 존재는 홍 감독의 공격 전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에도 시너지 효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이재성(마인츠), 황인범(페예노르트), 배준호(스토크시티) 등 지난 주말 소속팀에서 맹활약을 펼친 유럽과 공격수들의 발끝 감각도 홍 감독의 전술 준비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다. 홍 감독은 이번 쿠웨이트전을 앞두고 선수들의 방심을 가장 경계한다. 비록 FIFA 랭킹과 월드컵 3차 예선 순위에서 약체로 꼽히지만 홈 경기의 이점을 가진 만큼 다양한 변수를 이겨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게 홍 감독의 생각이다. 쿠웨이트는 월드컵 3차 예선 B조에서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4경기에서 단 3득점에 7골이 나 내주는 아쉬운 결과를 냈다. 다만 쿠웨이트는 B조에서 선전하는 요르단(1-1무)과 이라크(0-0무)를 상대로 무승부를 따내며 쉽게 패하지 않는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쿠웨이트의 3골은 모두 ‘백전노장’ 공격수 유세프 나세르(쿠웨이트SC)가 넣었다. 34살의 공격수인 나세르는 A매치 113경기에서 52골을 터트린 국민 영웅이다. 3골 가운데 2골이 페널티킥 득점이었지만 ‘한방을 가진 선수’인 만큼 경계 대상이다. /연합뉴스

전남 플라카, K리그2 39라운드 ‘MVP’에

멀티골로 전남드래곤즈의 준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끈 플라카(사진)가 2024시즌 마지막 ‘MVP’가 됐다. 11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K리그2 39라운드 ‘베스트11’에 플라카(FW), 발디비아(MF), 류원우(GK)가 선정됐다.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린 플라카는 MVP도 차지했다. 플라카는 지난 9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랜드와의 39라운드 경기이자 시즌 최종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전남의 4-0 승리의 주역이 됐다. 전남 10분 선제골을 장식한 플라카는 2-0으로 앞선 전남 32분에는 서울랜드의 추격 의지를 꺾는 추가골을 장식했다. 이날 전남은 전반 29분 나온 발디비아의 골과 후반 22분에 터진 박태용의 골을 더해 4-0 대승을 거뒀다.

팀의 두 번째 골을 장식한 발디비아와 ‘블린시트’로 최정전을 장식한 골키퍼 류원우도 베스트11의 영예를 안았다. 4골을 폭발시킨 전남은 39라운드 베스트팀이 됐다. 승점 3을 더한 전남은 4위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유리한 고지에서 K리그2 준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르게 됐다. 준플레이오프 경기는 오는 21일 전남의 안방인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부산아이파크와의 대결로 진행된다. 4위 전남은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기록해도 5위 부산을 따돌리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